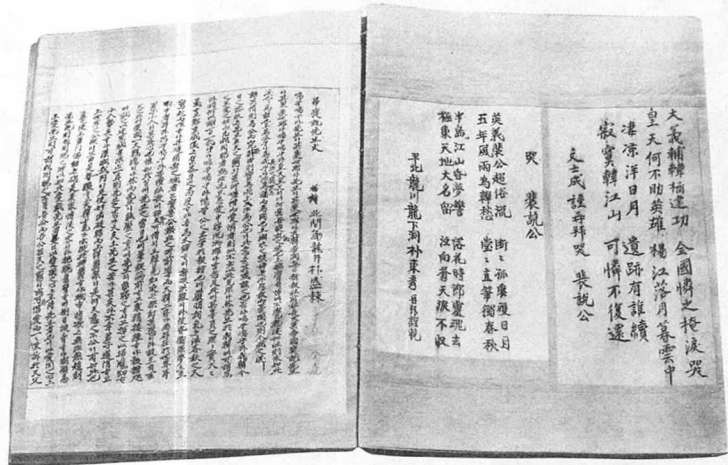


80년만에 돌아온 '배설 輓詞集'

朴殷植·梁起鐸 등 260여통... 英國서 찾아와

鄭晋錫

한국외국어대 교수·언론사



이 귀중한 자료는 대한매일신보사가 기념으로 만든 것을 배설의 미망인이 영국으로 가져갔었다.

異國에서 목숨다한 파란논의 언론인

1909년 5월 1일 대한매일신보의 창설자이자 그 사장이었던 영국인 배설(裴說: Ernest Thomas Bethell)이 죽었을 때, 전국의 뜻있는 인사들은 통곡하며 슬퍼해 마지 않았다. 불과 설흔여섯의 젊음이 애석하기도 했거니와, 이국땅에 와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명을 단축한 그 기개와 의리도 잊을 수가 없었다. 어떤 서양사람보다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했고,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벗이자 동지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전국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들이 신보사에 쏟아져 들어왔다.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책은 바로 이때 전국 각지에서 신보사로 보냈던 輓詞들을 제책한 것이다.

배설은 1904년 2월에 터진 노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영국의 「데일리 크로니클」이라는 신문의 특별통신원 자격으로 이해 3월에 내한했다. 그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15년간이나 무역업을 일본 고베(神戸)에서 했었다.

배설은 한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데일리 크로니클」의 특별통신원직을 그만두고 한글판 「대한매일신보」와 영어판 「코리아 데일리 뉴스」(Korea Daily News)를 창간할 준비에 착수했다. 이때 배설과 손잡고 신문을 만들던 사람이 梁起鐸선생이다.

양기탁은 신보사의 총무라는 직책으로 편집과 경영의 총책임을 맡아 신보를 민족운동의 중심기관이 되게 했고, 국민들의 항일의식을 고취했다. 양기탁을 중심으로해서 朴殷植과 申采浩같은 당대의 논객이자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피끓는 우국의 필봉을 휘둘렀다. 신보사는 1907년초부터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총합소가 되었고, 또 이무렵에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 新民會의 본거지이기도 했다.

일본은 한국침략에 방해가 되는 배설을 한국에서 추방하거나 신보를 폐간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로 영국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1907년과 1908년 두차례에 걸쳐서 배설을 재판에 회부했다. 1908년에는 배설이 3주일간의 禁錮刑을 인도받아 上海에까지 가서 복역하고 돌아와야 했다. 총무 양기탁도 국채보상금을 횡령했다는 죄목으로 일본당국이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했으나 무죄로 풀려났다.

배설은 이와같이 일제와 투쟁하는 가운데 건강과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어 마침내 1909년에 파란많은 일생을 마친 것이다.

영국에서 만난 배설의 孫子

내가 배설의 만사책을 입수한 경위는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이 해와 그 이

듬해에 걸쳐서 한국신문연구소가 「대한매일신보」의 영인사업을 벌였을 때 그 실무를 맡아 국내 각도서관의 신보 소장상황을 조사하여 이를 영인하는 일을 했었다. 또 1984년에는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에서 한글판을 영인했는데, 이 일도 내손으로 직접 했었다.

1985년 1월 나는 런던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과정을 밟으면서 배설과 신보를 둘러싼 英日간의 외교교섭을 외교사와 언론사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이때 나는 주로 런던에 있는 「공공기록보관소」에 가서 당시의 외교문서를 찾아보고, 「신문도서관」에서 영국과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에 실린 배설사건들을 조사했었다. 그러는 한편으로 영국의 등기소라할지 법원이라 할 수 있는 「제너럴 레지스터 오피스」(General Register Office)에 가서 배설의 家系를 캐보기도 하고, 배설이 1899년에 고베에서 설립한 「베설 브라더스」(Bethell Brother)라는 회사의 등기서류도 찾아본 끝에 배설의 후손이 살고 있는 주소를 알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런던 한 구석에 살고 있는 배설의 며느리 도로시여사와 배설의 손자 토미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이 귀중한 자료를 인수받을 수가 있었다. 배설의 유족을 찾아낸다는 것은 시골 사는 사람이 서울의 김서방 찾는 일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었는데도 나혼자 힘으로 어떻게 그들을 찾아냈는가 하는 이야기는 작년에 출간한 내 책 「대한매일신보와 배설」에 후기로 썼으므로 생략한다.

어쨌든 이 책을 대했을 때의 내 감격은 형언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배설이 죽은 직후인

1909년 5월 5일자 신보의 지면에는 박은식과 양기탁의 만사가 실려 있었다. 박은식은 “하늘이 공을 보내고는 또다시 데려갔구나. 구주의 의혈남아가 조선의 어둠을 씻어내고자, 삼천리 방방곡곡에 신문지를 뿌렸네. 꽃다운 이름이 남아서 다함없이 비추리”라고 애도했다. 양기탁은 “대영 남자가 대한에 와서, 한 신문으로 캄캄한 밤중을 비추었네. 온 것도 우연이 아니건만 어찌도 급히 빼앗아갔나. 하늘에 이 뜻을 묻고자 하노라”라고 탄식했다.

신보사는 박은식·양기탁의 글과 배설을 아끼던 민족진영 인사들의 만사하다가 전국에서 답지하는 만사들을 모아서 기념물로 보관기로 했음을 社告로써 알리고 있다. 이들 만사는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출신배경의 사람들이 망라되었다. 심지어는 미주에서 발행되던 「新韓民報」의 원고 용지에 적힌 것도 있고, 순한문이 대부분이지만 국한문 혼용으로 된 것도 있다. 전체 숫자는 260명쯤 된다. 신보사가 기우는 국운을 떠받드는 기둥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배설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말해 준다.

비단으로 표지를 입혀 제책된 이 만사집은 배설의 미망인 마리 마우드 여사가 일곱살 난 외아들 허버트 오웬을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갔던 것이다. 그후 일제는 한국을 병탄했지만 역사는 우리민족에게 다시 독립을 안겨 주었고, 암흑기간 동안 지구의 반대편 영국에 가 있던 이 귀중한 자료는 다시 내 손에 들려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8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흐른 것이다.

普成社

서울·마포구 신수동 445-5 출판단지內
전화 719-0784

글 더 잘쓰기 총서

- ① 글의 비밀
心理言語學者／金炳元
글은 누구나 다 잘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비밀을 깨쳐야 한다. 저자는 그의 다년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그 비밀을 철저히 공개하고 있다. 3500원
- ② 논픽션 쓰는 법
헤이즈B·제이콥스／金炳元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즐겁게 해주는 논픽션을 구성하는 일은 하나의 예술이다. 독자는 이 예술을 터득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작가인 제이콥스와 만날 것이다. 4000원
- ③ 소설의 방법과 인식
伊藤整／李基炳
전후 두 세계의 문화관이 일시에 태풍처럼 불어닥친 일본 문단에서 저자는 그 두 사조를 수용 비판 소화하여 일본적 문학을 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일본 전후의 명저로 뽑힌 책. 4500원
- ④ 추리소설 쓰는 법
미국추리소설작가협회／高廷基
추리소설은 문학과 장르중에서 독특하고 러블은 대중과 구성의 색스가 요청된다. 이 책은 미국의 대표적 작가들의 저나라한 문학 수업의 체험과, 추리소설의 골격이 되는 네 가지 요소의 관계를 들어가며 자세하게 서술한다. 4500원
- ⑤ 동화 쓰는 법
일리엄 리와인담／李相琴
특히 저자는 아동심리학과에 주안점을 두고 아이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 세계를 묘사할 것과, 동화를 쓰기 위한 선어면 자료를 모으고 이용할 것인가 등을 저자, 편집자, 독자의 입장에서 친절히 정리했다. *근간
- ⑥ 그림책 쓰는 법
엘렌 E. M 로버츠／金正
이 책은 그림책 쓰기의 이론이다. 그림책 작가의 지망생은 물론, 이미 노력한 작가라도 이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그림책의 원칙, 기법, 그림책의 효용 등을 체계화했다. 원색그림다수. 5000원
- ⑦ 주부작가로서 성공하는 법
엘렌 F. 심버그／고정기
바른손엔 가정, 왼손엔 가사(家事), 그리고 또 하나의 손으로 작가로서 훌륭히 활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이 책을 쓰지 유를 한 주부로서 가정의 행복을 꾀는 일 없이 문장을 쓰고 싶은 사람을 위해 *근간